

서른다섯 미혼모자가족 사례분석보고서

# 아름뜰은 미혼모자가족의 ‘비밀 언덕’입니다.

## 익숙하고도 낯선 이름 엄마, 자립의 발걸음을 내딛다.

아름뜰은 2006년 12월 미혼모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시설로 출발하여 2015년 7월부터 미혼모자가족의 자립을 돕는 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자시설로 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곳이며,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나) 숙식무료 제공, (다)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양육교육, 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뜰은 이러한 법률과 정책에 의거하여 미혼엄마가 2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면서 심리·사회·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항상 당사자의 욕구와 특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오면서도 실제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석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평소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는 점이 아쉽기도 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였기에 아름뜰에서 살았던 모든 미혼모자가족의 사례를 하나의 기준으로 분석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분석 대상은 아름뜰이 유형을 변경한 2015년 7월 이후 입소하여 2020년 12월까지 퇴소를 완료한 미혼모자가족으로 모두 35가족입니다. 이들이 미혼모자가족이라는 뭉뚱그려진 하나의 이름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자립을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정도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분석을 위해 먼저 입소상담기록지, 입소설문지, 아동출생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입소 당시 미혼모자가족의 연령, 학력, 건강 및 경제 상태, 주변 자원, 원하는 서비스 등을 파악한 후 서비스 과정기록지, 사례회의록, 퇴소설문지를 통해 지원 내용, 만족도, 변화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코드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분석 문항을 정리한 후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문항은 기준을 더 명확하게 분류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 사례분석 코드분류표를 확정하였고, 개별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코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분석코드를 적용할 수 없어 객관적 지표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공 서비스별로 상담기록 및 과정기록 등 개별기록을 확인하면서 서비스 제공 이전과 이후 변화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 직원들이 합의하여 변화 정도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분석과정을 거치면서 입소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한 모습으로 퇴소했던 미혼모자가족이 떠올라 새삼 고맙고 뿌듯하기도 했고,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례분석은 적은 사례 수와 제한적인 자료, 실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길을 찾아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저희에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었기에 보고서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나 모쪼록 미혼모자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현장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에게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례분석 과정 전반을 지도해주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기연 교수님께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름뜰 원장 이현주

## 입소 당시 상황

- 아픔들에 입소한 미혼엄마의 연령은 입소일자를 기준으로 최연소가 18세, 최고 35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4.1세였습니다. 그 중 10대가 5명으로 14.3%, 20대가 26명으로 74.3%\*, 30대가 4명으로 11.4%였습니다.
- 입소기간은 최소 1개월, 최대 24개월이었고, 평균 입소기간은 10.5개월이었습니다. 그 중 6개월 이내 퇴소한 경우가 16가족으로 45.7%, 7~12개월 사이에 퇴소한 경우가 4가족으로 11.4%를 차지하여 전체 입소가족 중에서 1년 이내 퇴소한 비율이 57.1%로 나타났습니다.  
입소 초기에 시설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입소자간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적응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입소 당시 미혼엄마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5명으로 14.3%, 고졸 이하가 22명으로 62.9%, 전체 77.2%가 고졸 이하였습니다. 이는 10대 미혼엄마가 14.3%임을 고려하더라도 입소자의 학력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연도별 신규 입소 가족 수는 시설 유형을 변경한 2015년 하반기에 7가족, 2016년 13가족, 2017년 5가족, 2018년 8가족, 2019년 2가족이 입소하였습니다.
- 입소 당시 미혼엄마가 응답한 성·피임지식 정도를 보면 '비교적 잘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명으로 54.3%,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가 15명으로 42.9%,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1명으로 2.9%였습니다.
- 미혼엄마와 아기 친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제 중으로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가 31명, 88.6%였고, 일회적인 관계가 3명으로 8.6%, 성폭력에 의한 경우도 1명으로 2.9%였습니다. 교제 중인 친밀한 관계에 의한 임신이 압도적인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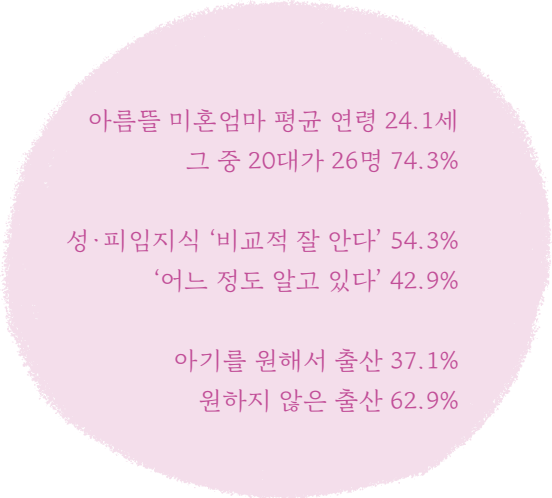
\* 24세 이하가 15명으로 20대의 57.7%를 차지함.

- 아기를 출산한 이유를 살펴보면 아기를 위해서 출산한 경우는 13명으로 37.1%였고, 22명인 62.9%는 원하지 않은 출산이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임신을 했는데도 2/3가 출산을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혼엄마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의논한 대상은 가족과 아기 친부, 친구 등 주변 다수와 의논한 경우는 4명인 11.4%에 지나지 않았고, 특히 당사자인 아기 친부만 의논한 경우도 4명으로 11.4%에 불과했습니다. 그밖에 상담기관과 의논한 경우가 11명으로 31.4%,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은 경우도 11명 31.4%로 나타나 사적 관계에서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못한 경우가 22명인 62.9%로 나타났습니다.
- 입소 당시 아기 연령은 최연소 1개월, 최고 17개월, 평균 5.9개월이었습니다. 그 중 생후 3개월 이내가 13명 37.1%로 가장 많았고, 90% 이상인 33명의 아동이 생후 1년 이내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 출산 시 아기 건강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2명인 5.7%가 미숙아이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미숙아 출생율\*\* 10%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입소 당시 아기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가족관계로는 가족과 아기 친부가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28명으로 80%였고, 아기 친부는 모르고 가족만 아는 경우는 2명으로 5.7%, 가족은 모르고 아기 친부만 아는 경우가 4명인 11.4%였습니다.  
성폭력이나 일회적 관계를 제외하면 아기 친부 모두 아기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입소 당시 미혼엄마의 아기양육 계획은 33명인 거의 대부분(94.3%)이 혼자 양육하겠다고 했으며, 아기 친부와 함께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1명으로 2.9%였습니다. 전체 미혼엄마의 14.3%가 10대, 42.8%가 24세 이하인 점을 감안한다면 10대, 20대 초반인 엄마들이 아무런 지원 없이 아기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우리(2016), 미숙아 지원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보건사회연구 36(4).

- 입소 당시 미혼엄마가 가족에게 바라는 점은 23명인 65.7%가 '이해와 수용'이라고 응답했고, '바라는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명으로 22.9%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원하지 않은 출산과 아기 친부로부터 인정받지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함께 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가족의 인정과 지지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시설을 알게 된 경로는 20명이 미디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인 57%로 나타났고, 사회복지기관이 8명으로 22.9%, 입소자 소개가 6명으로 17.1%였습니다.
- 복수 응답한 시설 입소 동기는 주거 및 생계지원이 68.5%로 가장 높았고, 양육지원이 48.5%, 교육지원은 28.6% 순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산 이후 주거와 생계에 대한 욕구가 가장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반영하고 있거나, 입소 희망자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입소 이전이나 출산 이전 가졌던 직업은 비정규 서비스직이 20명인 57.1%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과 전문직은 각각 3명인 8.6%였습니다. 특히 무직이 5명으로 14.3%, 미성년 혹은 학생이 3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거와 생계 보호가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입소 전 시설생활 경험과 관련하여, 시설생활 경험이 전혀 없었던 미혼엄마는 5명으로 14.3%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 아동양육시설이나 한부모시설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과 한부모시설을 거쳐 생애 대부분을 시설에서 보낸 경우도 3명으로 8.6%였습니다.
- 입소 전 거주지는 출산을 지원하는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시설이나 아픔들과 같은 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자시설인 경우가 27명으로 77.1%를 차지했고, 가족과 함께 살다가 입소한 경우가 4명으로 11.4%, 혼자 혹은 지인과 살다가 입소한 경우가 4명으로 11.4%였습니다.
- 입소 당시 부채 총액은 최소 217만원, 최대 5,000만원으로 평균 1,199만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채가 전혀 없거나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20명으로 57.1%였으며, 15명인 43%가 부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중 부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7명으로 20%였고, 2,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3명으로 8.6%였습니다.

- 입소 당시 저축 정도를 보면 저축액이 전혀 없는 경우가 24명으로 68.6%가 경제적 고위기 상황에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축이 있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500만원 이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2명으로 5.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저축액은 최소 2만원, 최대 2,000만원, 평균 155만원 수준이었습니다.
- 입소 당시 미혼엄마가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로 '양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6명으로 74.3%였고, 허약하거나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명인 5.7%였습니다. 입소자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보니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질병이 있거나 허약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자신의 질병이나 장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고, 허약하거나 질병이 있어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도 4명 중 2명이었습니다.



## 시설 생활과 퇴소 이후

- 입소기간 중 시설에서 인지하게 된 질병이나 장애 여부는 미혼엄마가 자기평가에 의한 허약 혹은 질병상태라고 응답한 수보다 입소 후 시설에서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 훨씬 높아서 전체 인원의 34.3%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소자 중에서 질병과 장애가 있는 경우를 중복 점검한 결과 치과질환이 20%, 신체질환이 11.4%, 정신질환이 2.8%로 나타났습니다.
- 입소기간 중 질병 치료 상황을 보면 질병이 있는 미혼엄마 11명 중에서 치료를 완료한 후 퇴소한 경우가 5명으로 45.5%, 치료 중에 퇴소한 경우가 4명으로 36.4%였으며, 본인의 치료거부로 치료하지 못한 경우도 2명으로 18.2%에 해당하였습니다.
- 퇴소 사유는 만기퇴소가 12명인 34.3%로 가장 많았고, 입소자 간 갈등이나 부적응으로 인한 퇴소도 7명으로 20%였습니다. 입소자 본인이 응답한 퇴소 사유와 시설이 판단하는 퇴소 사유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입소자가 입소상태를 유지하기 부적절한 상황이 되었거나 시설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경우 등으로 실제 퇴소 사유와 본인이 응답한 퇴소 사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시설생활 만족도는 65.7%인 23명이 만족하고 있었고,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11명으로 31.4%, 불만족은 1명으로 2.9%로 나타나 대부분 만족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 시설생활 중 도움이 된 서비스를 순서대로 3개씩 응답한 결과를 보면 1순위로 선택된 서비스는 주거지원이 71.4%, 생활지원 20%이며, 2순위는 생활지원이 63.6%, 3순위로는 상담서비스가 38.7%, 취업지원이 25.8%였습니다. 입소 당시에 주로 기대했던 서비스는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으로 다른 서비스에 대한 기대나 욕구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주거나 생활이 안정된 이후 상담이나 취업지원을 통한 이차적 욕구충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입소기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80%인 28명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20%인 7명은 짧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입소기간 동안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우는 19명으로 54.3%였고, 받지 않은 경우는 16명인 45.7%로 나타났습니다. 취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19명 중 취업이나 자립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경우는 11명으로 57.9%, 보통은 6명으로 31.6%,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경우도 2명으로 10.5%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하로 평가한 경우가 42%인 점을 볼 때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취업지원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입소자 16명의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중도퇴소가 10명으로 62.5%, 양육 전념이 3명으로 18.8%, 학력취득 준비가 2명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퇴소 후 거처에 대한 계획은 독립생활을 하거나 친구와 함께 거주할 계획이 57.1%인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 시설로 입소할 계획이 8명으로 22.9%, 가족과 합가가 4명으로 11.4%로 나타났습니다. 퇴소 이후 시설에서 파악한 실제 거처는 독립생활이나 친구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타시설로 입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퇴소 후 진로 계획은 취업과 관련한 내용이 80%인 28명이었고, 양육이나 결혼이 5명으로 14.3%, 학업이 2명으로 5.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입소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해 91.4%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8.6%였습니다. 본인이 기술했던 응답 내용이 경제교육, 오감놀이, 가족여행, 집단상담, 외식, 문화나들이, 이유식교육, 개인상담 등 다양한 것으로 볼 때 입소기간 중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 퇴소 이후 시설이나 직원과 계속 연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연락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으로 68.6%였고, 모르겠다는 경우는 11명으로 31.4%였습니다. 퇴소 후 지속적인 연계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 한 사후상담 등 퇴소 후 연계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 입소기간 중 만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4.3%인 26명이며, 서비스 및 직원과의 관계 모두에 만족하는 경우는 5명으로 14.3%, 직원과의 관계에만 만족하는 경우는 2명으로 5.7%, 기타는 2명인 5.7%가 응답하였습니다.
- 입소기간 중 불만족스러운 요인은 공동생활 및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이 62.9%인 22명으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요인 역시 생활공간에 대한 불만족이 3명인 8.6%로 전반적으로 공동생활과 생활공간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족 사유와 퇴소 사유 등 많은 부분이 시설의 구조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어 공동생활로 구성된 기본체계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생활공간이라는 점, 이전보다 개인생활 보호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심도 깊은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입소자들이 입소 전에 비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양육역량, 가족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 부채, 상위 학력취득, 자격취득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했으며, 기존 자료에서 양육역량이나 가족관계개선, 건강 등에 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직원들이 상담기록을 반영하여 합의적 판단을 통해 평가하였습니다. 입소 시점에 비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영역은 양육역량 향상으로 74.3%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가족관계개선으로 62.9%, 정신건강개선이 45.7%, 신체건강개선이 31.4%, 부채 해결이 2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은 전체 미혼엄마 35명에 대한 비율이므로 실제 해당 어려움이 있었던 대상자에 한해서만 평가한다면 그 성과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퇴소 시 저축액은 최소 100만원, 최대 3,0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563만원이며, 저축을 하고 있는 입소자로 범위를 한정한다면 평균 저축액이 89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 당시 저축 현황과 비교할 때 저축이 없는 인원이 24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어 퇴소 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35가족 전체를 평균한 금액이므로 만기 퇴소에 가까울수록 저축액이 크게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퇴소시점의 부채 현황에 대한 명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아름뜰에서는 채무 변제를 우선적으로 한 후에 저축을 하도록 지원하였으므로 만기 퇴소한 경우 부채는 모두 탕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채나 저축에 대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가장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로는 22.9%인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상위 학력취득은 2명인 5.7%로 나타났습니다. 입소 중 취득한 자격증 중 7명인 87.5%가 국가 혹은 공인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민간자격은 1명인 12.5%로 나타나 향후 자격증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퇴소 시 취업 상황을 보면 미취업상태로 퇴소한 경우가 23명인 65.7%로 가장 많고, 비정규직이 7명으로 20.0%, 전문직이 4명으로 11.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퇴소자 35명 전체 평균이므로 만기 퇴소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취업한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소 이전이나 임신 및 출산 이전에 직업을 경험한 경우는 있지만 입소 당시에는 대부분 무직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입소 이후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직업역량이 강화되고, 전문직을 가진 입소자가 생기는 등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 퇴소 이후 사후상담이 이루어진 비율은 22명으로 62.9%로 나타났습니다. 사후상담을 통해 퇴소자의 근황을 파악한 결과 22명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21명으로 95.4%였고, 결혼한 경우가 2명으로 9.1%,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16명으로 72.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퇴소 시점에 무직이 2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소득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정착 혹은 진입이라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자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성과 평가도구나 기준을 마련한다면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입소자 연령 분포

구분	빈도(명)	비율(%)
10대	5	14.3
20대	26	74.3
30대	4	11.4
전체	35	100.0

2. 연도별 입소 인원

구분	빈도(명)	비율(%)
2015년(7월 1일 이후)	7	20.0
2016년	13	37.1
2017년	5	14.3
2018년	8	22.9
2019년	2	5.7
전체	35	100.0

3. 총 입소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0~6개월	16	45.7
7~12개월	4	11.4
13~18개월	6	17.1
19~24개월	9	25.7
전체	35	100.0

4. 입소 당시 학력

구분	빈도(명)	비율(%)
중졸이하	5	14.3
고졸이하	22	62.9
대졸미만(전문대졸 포함)	7	20.0
대졸이상(4년제)	1	2.9
전체	35	100.0

5. 입소 당시 입소자가 응답한 성·피임지식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비교적 잘 안다	19	54.3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15	42.9
거의 모른다	1	2.9
전혀 모른다	0	0
전체	35	100.0

6. 아기 친부와와의 관계

구분	빈도(명)	비율(%)
교제 중/친밀한 관계	31	88.6
일회적 관계	3	8.6
교제하지 않은 지인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 지인, 동창 등)	0	0
성폭력	1	2.9
전체	35	100.0

7. 출산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아기를 위해서	13	37.1
원치 않은 출산 (+여러 사유로 낙태하지 못한 경우)	22	62.9
전체	35	100.0

아기 친부와 교제 중 친밀한 관계에서 임신 88.6%.  
아기 존재를 모르는 아기 친부는 5.7%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엄마 혼자 출산과 양육 감당

8. 출산 시 아기 건강상태

구분	빈도(명)	비율(%)
건강	33	94.3
미숙/질병/장애	2	5.7
전체	35	100.0

9. 출산 및 양육에 대해 의논한 대상

구분	빈도(명)	비율(%)
가족, 아기친부, 친구 등 다수	4	11.4
가족	2	5.7
친구	3	8.6
아기친부	4	11.4
상담기관	11	31.4
의논하지 않음	11	31.4
전체	35	100.0

10. 입소 당시 아기 연령(개월)

구분	빈도(명)	비율(%)
0~3개월	13	37.1
4~6개월	9	25.7
7~12개월	11	31.4
13~18개월	2	5.7
전체	35	100.0

11. 입소 당시 아기 존재 인지하고 있는 가족관계

구분	빈도(명)	비율(%)
가족	2	5.7
아기친부	4	11.4
가족+아기친부	28	80.0
아무도 모름	1	2.9
전체	35	100.0

12. 입소 당시 입소자의 아기양육 계획

구분	빈도(명)	비율(%)
혼자 양육	33	94.3
아기친부와 함께 양육	1	2.9
가족 도움 받으며 양육	0	0
기타	1	2.9
전체	35	100

13. 입소 당시 입소자가 가족에게 바라는 점

구분	빈도(명)	비율(%)
이해와 수용	23	65.7
출산사실을 숨기고 싶다	2	5.7
가족과 단절 희망	0	0
없음	8	22.9
기타(결혼 허락 등)	2	5.7
전체	35	100.0

14. 시설을 알게 된 경로

구분	빈도(명)	비율(%)
알고 있었음(타 입소자 소개 포함)	6	17.1
관공서	0	0
미디어	20	57.1
가족·친구·동료·이웃	1	2.9
사회복지기관	8	22.9
전체	35	100.0

미혼 엄마 혼자 아기 양육 예정 94.3%  
아기 친부와 함께 양육 예정 2.9%

15. 시설 입소 동기(복수 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35명 중 %)
주거 및 생계 해결	24	68.5
양육지원	17	48.5
교육지원(직업교육 포함)	10	28.6
심리지원	0	0
의료지원	0	0

16. 입소 혹은 출산 전 직업

구분	빈도(명)	비율(%)
무직	5	14.3
비정규직+서비스직	20	57.1
정규직+서비스직	3	8.6
전문직	3	8.6
미성년/학생	3	8.6
성산업	1	2.9
전체	35	100.0

17. 입소 전 시설생활 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시설 경험 없음	5	14.3
아동양육시설	1	2.9
한부모시설	26	74.3
양육시설+한부모시설	3	8.6
전체	35	100.0

입소 전 한부모시설 경험 74.3%  
 아동양육시설·한부모시설 모두 경험 8.6%  
 14.3%만 시설 경험 없음

18. 입소 전 거주지

구분	빈도(명)	비율(%)
시설	27	77.1
가족	4	11.4
아기친부/남자친구	0	0
혼자/지인(친구 포함)	4	11.4
전체	35	100.0

19. 입소 당시 부채 총액

구분	빈도(명)	비율(%)
없음/부채 미파악	20	57.1
100~499만원	7	20
500~999만원	3	8.6
1,000~1,999만원	2	5.7
2,000~2,999만원	2	5.7
3,000~5,000만원	1	2.9
전체	35	100.0

20. 입소 당시 저축 총액

구분	빈도(명)	비율(%)
없음	24	68.6
100만원 미만	4	11.4
100~499만원	5	14.3
500~999만원	0	0
1,000~3,000만원	2	5.7
전체	35	100.0

21. 입소 당시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구분	빈도(명)	비율(%)
양호	26	74.3
보통	5	14.3
허약	2	5.7
질병	2	5.7
전체	35	100.0

22. 입소 당시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질병·장애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4	11.4
아니오	31	88.6
전체	35	100.0

23. 입소 당시 질병 치료 상황

구분	빈도(명)	비율(%)
치료중	1	25.0
치료완료	1	25.0
치료받지 못함	2	50.0
전체	4	100.0

24. 입소기간 중 시설에서 인지하게 된 질병·장애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2	34.3
아니오	23	65.7
전체	35	100.0

24-1 시설에서 파악한 질병·장애가 있는 입소자(복수 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35명 중 %)
치과질환	7	20.0
신체질환	4	11.4
정신질환	3	8.6
지적장애	1	2.8

25. 입소기간 중 질병 치료 상황

구분	빈도(명)	비율(%)
치료 중 퇴소	4	36.4
치료완료 후 퇴소	5	45.5
치료거부/치료 못함	2	18.2
전체	11	100.0

26. 시설생활 중 도움이 된 서비스 순서(3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주거지원	25	71.4	5	15.2	0	0
생활지원	7	20.0	21	63.6	4	12.9
상담	1	2.9	1	3.0	12	38.7
정서적 안정	1	2.9	2	6.1	2	6.5
의료지원	0	0	1	3.0	4	12.9
취업지원	0	0	3	9.1	8	25.8
학력취득지원	1	2.9	0	0	1	3.2
관계개선(가족/아기친부)	0	0	0	0	0	0
전체	35	100.0	33	100.0	31	100.0

도움이 된 서비스 최다 응답 순서는  
주거지원 25명 71.4%, 생활지원 21명 63.6%, 상담 12명 38.7%

27. 입소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입소자가 직접 응답 기록)

구분	빈도(명)	비율(%)
응답	32	91.4
미응답	3	8.6
전체	35	100.0

• 응답 내용 : 경제교육, 오감놀이, 가족여행, 집단상담, 외식, 문화나들이, 이유식교육, 개인상담

28. 입소기간의 적절성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8	80.0
아니오	7	20.0
전체	35	100.0

28-1 입소기간이 적절하지 않다면

구분	빈도(명)	비율(%)
짧다	7	100.0
길다	0	0
전체	7	100.0

29. 입소기간 동안 직업교육·훈련 유무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9	54.3
아니오	16	45.7
전체	35	100.0

29-1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다면 취업 및 자립에 도움이 되었는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도움	11	57.9
보통	6	31.6
도움 안 됨	2	10.5
전체	19	100.0

29-2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양육전념	3	18.8
학력취득 준비	2	12.5
중도퇴소	10	62.5
취업상태	1	6.3
기타(질병/장애 등)	0	0
전체	16	100.0

30. 입소기간 중 만족한 부분

구분	빈도(명)	비율(%)
서비스/프로그램	26	74.3
직원	2	5.7
서비스/직원 모두	5	14.3
기타	2	5.7
전체	35	100.0

시설생활에 대해 65.7%는 만족, 31.4%는 보통으로 답변  
불만족 요인 중 62.9%가 공동생활 및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

### 31. 입소기간 중 불만족한 부분

구분	빈도(명)	비율(%)
서비스/프로그램	1	2.9
직원	2	5.7
공동생활/다른 입소자와 갈등	22	62.9
생활공간	3	8.6
없음	7	20
전체	35	100.0

### 32. 시설 생활 만족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만족	23	65.7
보통	11	31.4
불만족	1	2.9
전체	35	100.0

### 33. 성과평가

구분	빈도(명)	비율(35명 중 %)
입소 중 양육역량 향상	26	74.3
입소 중 가족관계개선	22	62.8
입소 중 신체건강개선	11	31.4
입소 중 정신건강개선	16	45.7
입소 중 부채해결/감소	8	22.8
입소 중 상위 학력 취득	2	5.7
입소 중 자격증 취득	8	22.8

### 33-1 저축현황

구분	빈도(명)	비율(%)
없음	13	37.1
100만원 이하	3	8.6
100~499만원	6	17.1
500~999만원	5	14.3
1,000~3,000만원	8	22.9
전체	35	100

### 33-2 자격취득

구분	빈도(명)	비율(%)
국가+공인	7	87.5
민간	1	12.5
전체	8	100

### 33-3 입소 당시·퇴소 시 직업 비교

구분	입소 당시		퇴소 시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무직	34	97.1	23	65.7
비정규직+서비스직	1	2.9	7	20
정규직+서비스직	0	0	1	2.9
전문직	0	0	4	11.4
미성년/학생	0	0	0	0
성산업	0	0	0	0
전체	35	100	35	100

34.3%는 입소기간 만료 및 입소 목표 달성 이후 퇴소  
20%는 입소자간 갈등이나 시설 부적응으로 퇴소

34. 퇴소 후 거처

구분	입소자 계획		시설에서 실제 파악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시설	8	22.9	9	25.7
가족	4	11.4	4	11.4
아기친부/남자친구	3	8.6	3	8.6
독립/친구	20	57.1	19	54.3
전체	35	100.0	35	100.0

35. 퇴소 후 진로 계획

구분	빈도(명)	비율(%)
취업·창업/취업유지	28	80.0
학업	2	5.7
양육전념/결혼	5	14.3
기타	0	0
전체	35	100.0

36. 퇴소 후 시설 및 직원과 계속 연락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4	68.6
아니오	0	0
모르겠음	11	31.4
전체	35	100.0

퇴소 후 22명 62.9% 사후상담 계속 진행  
 21명 95.4% 아동 직접 양육  
 16명 72.7% 소득활동 중

37. 입소자와 시설이 판단하는 퇴소 사유 비교

구분	입소자		시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만기+연장+목표달성	12	34.3	12	34.3
입소자 간 갈등/부적응	7	20.0	7	20.0
부적절 대상/부적절 이용 (재산, 임신, 공동생활 어려움 등)	5	14.3	9	25.7
아기친부/남자친구 합가	5	14.3	3	8.6
가족 복귀	1	2.9	0	0
중도퇴소 (주거마련, 시설 이동 등)	3	8.6	2	5.7
자녀분리(입양/시설보호)	2	5.7	2	5.7
전체	35	100.0	35	100.0

38 사후상담 진행여부(시설에서 평가)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2	62.9
아니오	13	37.1
전체	35	100

38-1 시설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요 근황

구분	빈도(명)	비율(22명 중 %)
양육 유지	21	95.4
결혼 여부	2	9.1
소득활동 여부	16	72.7

## 육아공동체 혹은 인생친구를 만나다.

1과 2는 출산 시기가 비슷했고, 입소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아이돌보미 지원이 없던 시절이라 시설에서 아이돌봄을 지원해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돌봄 지원에 공백이 생길 때마다 서로 아이를 돌봐주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하는 동안 아이 돌봄 품앗이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원하던 직종에 취업하여 아름다를 퇴소하면서 한 가족은 LH임대주택으로, 다른 한 가족은 모자시설로 이사를 했지만 이후에도 두 엄마는 서로의 생활을 지지하면서 가족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속내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8과 9도 비슷한 시기, 비슷한 연령(개월수)의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할 때마다 함께 아이를 돌봤습니다. 특히 이유식을 함께 만들어 먹이니 아이들의 식단이 늘 풍성했고, 항상 함께 노는 친구가 있으니 아이들은 더 재미있고, 엄마들은 육아가 더 수월해지는 육아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에서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에도 성공한 두 사람은 입소기간을 꼭 채워 각자 LH임대주택으로 퇴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두 가족은 서로의 집을 오가거나 주말마다 교회에서 만나면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인생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설에서 사는 동안 엄마들은 친구 이상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설에서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큰 불편이 될 수도 있고, 불편 이상으로 좋은 점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소자를 입소 순서대로 번호로 표기하였습니다.



## 시설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본다.

미혼모자시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엄마가 되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자원도 없이 혼자 아동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미혼엄마가 직면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시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혼엄마들이 기본적인 살림이나 육아를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을 준비하여 당당하게 시설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도 당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체로 어린 시절 돌봄과 애정의 결핍이 너무 크거나, 회복되지 않은 큰 상처가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분석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사실은, 성장기의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부모나 조부모, 혹은 특정인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필요한 돌봄을 받았던 경험, 즉 애착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립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미혼모자가족의 자립을 돕기 시작한 초기에는 미혼엄마들이 입소기간 동안 어떻게든 자립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학력 취득이나 직업 훈련을 열심히 독려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당사자를 보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무능을 탓하며 자책하거나 좌절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 입소자들을 만나며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립’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취업과 관련한 경제적 측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자립 준비가 아니며, 마음의 결핍과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돌보면서 심리·사회적 자립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 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자가 지닌 개별적인 욕구나 결핍이 조금이라도 더 충족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아픔들을 퇴소하고 살아가는 동안 시설에서 지냈던 시간이 따뜻하게 기억되기를 바라며,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시설에서 도움을 주기 어려운 사각지대 미혼모자가족입니다. 미혼엄마가 지적 어려움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자립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입니다. 밥하기나 빨래, 청소 같은 최소한의 일상생활도 해내기 어려운 엄마에게 육아는 너무 가혹한 과업입니다. 이런 엄마일수록 공동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다른 엄마들이 강하게 불편을 제기하기도 하고, 종종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한 시설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나마 시설에 있는 동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언젠가 입소기간이 만료되고 지역사회로 나가야 할 때가 오면 일상생활이나 육아, 경제적 자립이 매우 어려운 미혼모자가족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아름뜰에서 살았던 35명의 미혼엄마 중 9명은 진단을 받았거나,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심리·정서적 어려움 혹은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입니다. 이런 미혼모자가족에게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나 육아를 전폭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설 혹은 체계가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 유형,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겠지만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라도 만들어서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미혼모자가족들이 입소기간이나 지원범위와 같은 제약에 의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특히 아이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미혼모자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인권적 책무와 ‘공동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업무 속에서 시설은 언제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약자를 먼저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미혼모자가족의 대변인이자 옹호자로서 우리들의 책무를 날마다 상기하면서 말이지요.

## 돌아보고 나아가기 위한 사례분석

아름뜰에 입사하기 전에는 한부모, 특히 미혼한부모에 대해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혼자 아기를 책임진다는 결정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을 성실하게 준비할 것이고, 아기를 잘 키우겠다는 의지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모든 상황이 제 기대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립 준비와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탓인지 아기를 양육하는 기본적인 방법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엄마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금방 엄마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엄마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어떻게 돕는 게 더 좋은 방법인지 늘 고민하다가 문득 미혼모자가족을 지원했던 5년여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35가족의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은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일찍 분리되었거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상처가 너무 커서 도무지 곁을 내주지 않거나 정서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대화가 어렵고 자신이 가진 어려움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등 사회복지사로서 마땅한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정서적 건강을 회복하고 아기를 잘 키우게 된 엄마들도 있었고, 아름답게 오기 전에 있었던 큰 빛을 모두 갖고, 저축도 하고, 성실하게 직업훈련을 끝내고 취업을 해서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자립하는 자랑스러운 엄마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아름답게 함께 부대끼며 보냈던 지난 시간이 충분히

히 가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느끼고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한 기간이 짧거나 기록이 부족한 경우, 퇴소 이후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등 아쉬운 점도 많아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입소부터 퇴소까지 모든 상담기록을 보다 정교하게, 구조화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퇴소한 미혼모자가족들을 더 많이 지지하고 응원할 생각입니다.

아름뜰에서 살았던 모든 미혼모자가족이 자립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가 가진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으로 잠시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면 고단했던 지난 시간의 상처도 조금은 치유되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경험과 마음이 쌓이면 자신을 더 존중하고, 아기에게도 더 따뜻한 엄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변화를 이끌고 싶다는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작은 계기라도 만들어주는 것, 더디더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칠 때도 많지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 크기는 달라도 누군가의 세계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경험이 더해질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가만히 되새겨봅니다.

사회복지사 나선영

2021년 11월 24일 펴냄

**아름뜰** 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32-3

전화 02-334-4614, 010-5060-4614 전송 02-334-4617

누리집 [www.holt.or.kr/arum\\_garden](http://www.holt.or.kr/arum_garden) 전자우편 [arum@holt.or.kr](mailto:arum@holt.or.kr)

기획·편집 이현주 사례분석 나선영 디자인 비따

Copyright ©2021 아름뜰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아름뜰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